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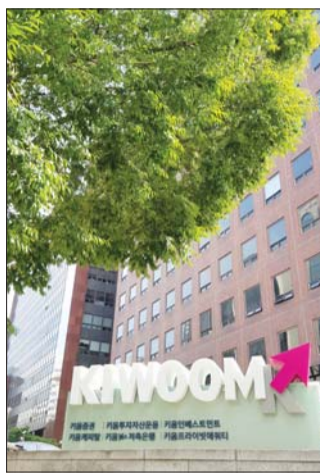
증권사, 조직개편·인재영입 통해 리테일 부문 ‘힘 신기’

키움증권, WM 산하 플랫폼본부 신설 하이투자증권, 조직 슬림화 실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 조직 IBK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 선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및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실적 악화 속에 인재 영입 등 조직 개편을 통해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은 지난 1일 자산관리(WM) 부문 산하 플랫폼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과 사용자 환경(UI·UI·User Interface)을 개선, 선두 주자의 입지를 다져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이투자증권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전경.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전경.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슬림화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PF 위기관리와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리테일총괄의 영업지원실을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대출중개 등 시너지 영업을 담당하는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 또한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내 영업점은 폐지하고, 강북WM 센터를 서울금융센터로 변경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자산관리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증권,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WM)와 증권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증권 고객뿐 아니라 은행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1일 디지털 전환(DT) 부문 디지털혁신본부장으로 정병운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정 상무는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카카오페이증권 부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MTS 전면 개편에 착수한 IBK투자증권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리테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증권사들은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AI 반도체 열풍 등으로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테일 부문을 강화, 수익을 다변화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 삼성·미래에셋·NH투자·한국·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178억원을 기록, 시장 컨센서스를 16.2%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도 투자는 행(IB) 부문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리테일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면서 “증권사들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테일 사업 부문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증권사 종목 리포트, 대형주 ‘쏠림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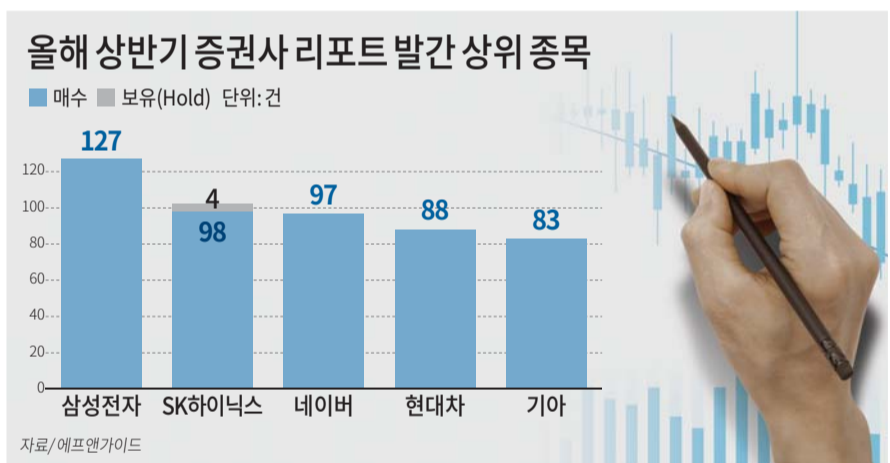
상장사 중 65% 정보 제공 안 돼 발간 상위 5개 종목, 전체 6.73% 해당 리포트 중 ‘매도’는 0개

올해 상반기 발간된 증권사들의 종목 리포트가 대형주로 쏠림과 동시에 ‘매도’는 단 2건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의 편향된 종목 리포트 흐름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발간한 삼성전자 리포트 총 127건의 투자 의견이 모두 ‘매수’로 집계됐다. 총 102건이 나온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98건이 매수였지만, 4건은 ‘보유’(Hold)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10만전자’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리포트를 한 번이라도 발간한 상장사는 총 934곳으로, 전체 상장사 2703곳 중 34.55%에 불과했다. 이 중 코스피는 380곳, 코스닥은 554곳으로 리포트가 전무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45.13%, 31.87%씩인 셈이다. 사실상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60% 이상의 투자 관련 기업 정보·평가 등이 제공되지 않는 셈이다.

그마저도 대형주에 편중됐다는 지적



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 리포트 발간 상위 5개 종목인 삼성전자(127건), SK하이닉스(102건), 네이버(97건), 현대차(88건), 기아(83건)의 리포트 총합은 497개이다. 단 5개 종목이 코스피 종목에서 나온 리포트 737개 중 6.73%를 차지한다. 게다가 해당 리포트 중 ‘매도’ 리포트는 0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의 주 고객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유니버스를 형성할 때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0년 1575명이었던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는 지난해 1082명으로 31.3% 줄어 들었다.

이렇듯 ‘깜깜이 투자’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미흡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발행된 기업 보고서 8662건 중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경우는 2건(0.02%)이며, 사실상 매도로 해석되는 ‘비중 축소’도 4건(0.05%)에 그쳤다. 반면, ‘매수’ 의견은 8012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유’는 636건(7.34%), ‘강력 매수’는 8건(0.09%)으로 집계됐다. 공격적 성향을 지닌 투자 의견인 ‘강력 매수’ 의견이 ‘매도’와 ‘비중 축소’의 합보다 많은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 A씨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도 폭에 테러 수준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애널리스트 의견을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7兆 돌파

전년비 5148억 늘어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7조원을 돌파했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

금은 7조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8억원(7.92%) 증가했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성장세를 보였다. NH투자증권 DC형과 IRP 적립금은 3조7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편리한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이 유효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퇴직연금 고객관리를 강화해 왔다.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美빅테크7+ 15% ETF’ 순매수세

순자산액 1058억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연간 분배율 15%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ETF는 지난 4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2일 순자산액 10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순자산액 증가 배경으로 개인투자자 순매수세를 꼽았다. 개인투자자들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가 상장한 이후 73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1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의 순매수세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 특징 덕분에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

당 ETF의 우수한 성과를 강조했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최근 1개월 기준 10.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23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기반으로는 ‘미스매칭 전략’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지수(Bloomberg US Big Tech Top 7 Plus Premium Decrement 15% Distribution Index)와 옵션 프리미엄 수취가 용이한 나스닥100DTE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기초지수 성과가 나스닥 성과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인 셈이다. OTM 1% 옵션을 활용해 프리미엄 외에 시장 성과를 일정 부분 추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 본부장은 “우수한 성과와 연간 목표 분배율 15%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한국형TDF2050, 5년 수익률 63%”

삼성자산운용, 생애주기별 스타일 배분

삼성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삼성한국형 2050(UH)의 5년 수익률이 63%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TDF는 대표적인 연금 투자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은퇴 시점에 맞춰 성장자산과 안정자산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 삼성한국형TDF2050(UH)는 전세계 90여 개국, 1800여 개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또한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자산 비중만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TDF와는 달리, 생애주기별 스타일 배분을 적용한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TDF 전략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투자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장기 성과를 시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년 수익률과 1년 수익률도 각각 27%, 19.8%를 기록했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 본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업계 최다 TDF시리즈를 운용 중”이라며 “대표적인 은퇴플랜 상품인 TDF를 통해 고객의 은퇴 이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